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코로나19 차단·범죄예방 '일등공신'

2013년 개소해 총 6593대 운영 중
2월부터는 확진자 동선파악 지원
최근까지 각종 검거 사례 '630건'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각종 범죄예방은 물론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에도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광역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개소한 광주 CCTV통합관제센터가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차량번호인식용 등의 목적에 따라 설치한 총 6593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관제센터 인력은 89명이며 24시간 교대근무로 연중무휴 체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는 보건당국의 발 빠른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록 선제적으로 영상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통합관제센터는 확진자가 다녀간 공원, 병원, 아파트 등 CCTV 영상분석이 필요한 곳에 16차례에 걸쳐 관제원 31명을 파견해 밀접접촉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이동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평소에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건·사고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복구의 한 근린공원에서 차매 어른신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마지막 발견지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 1시간 20여분 만에 어른신을 발견했다. 지난 10일에는 복구의 한 근린공원에서 차매 어른신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마지막 발견지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 1시간 20여분 만에 어른신을 발견했다.



광주 CCTV통합관제센터 상황실.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도 일등공신이다. 통합관제센터가 개소 이후 범인을 검거한 사례는 630건에 달한다. 통합관제센터는 안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CCTV 2050대, 비상벨 93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통합관제센터가 개소 이후 범인을 검거한 사례는 630건에 달한다. 통합관제센터는 안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CCTV 2050대, 비상벨 93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신봉우 기자

광주·전남중기청, 수출bauer사업 4차 참여기업 모집

전국 360개사 선정하고 수출실적에 따라 최대 8천만원 국비 지원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빠른 위기극복과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올해 수출bauer사업 4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현조, 이하 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위기를 극복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서비스를bauer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수출bauer사업' 참여기업을

추기 모집한다. 수출bauer사업 4차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애로 기업들의 경영정상화와 대체 수출시장 발굴을 위해 약 135억원을 투입해 360여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4차 모집은 전년도 수출 실적에 있는 수출기업 중 수출액 규모별 이상 ~ 500만불 미만의 기업들이 대상이며, 9월말 수출bauer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

들에게는 전년도 수출규모에 따라 3,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까지 수출bauer사업을 지급한다. 이번 모집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수출baue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문의는 수출bauer지원센터(055-752-8580) 또는 중기청 수출지원센터(062-360-9192)로 문의하면 된다.

서선욱 기자

광주희망일자리사업 경쟁률 1.64대 1 기록

광주시는 시민공공 일자리사업 2단계 2차 사업인 2020년 광주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접수 결과 평균 1.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시

페이지와 시, 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102개소에서 동시 신청을 받은 결과 264개 사업 4314명 모집에 평균 1.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 서구가 802명 모집에 1531명이 신청해 1.91대 1의 가

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북구가 1194명 모집에 2150명이 신청해 1.81대 1, 남구가 725명 모집에 1298명이 신청해 1.8대 1, 광산구가 1123명 모집에 1522명이 신청해 1.36 대 1, 동구가 470명 모집에 549명이 지원해 1.17 대 1을 기록했다.

임형택 기자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하향 전환 "방역수칙 준수 중요"

전남도는 26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인접한 광주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 확산하자,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한 차례 연장해 이날까지 적용했다.

전남도는 지역 코로나19 발생추이와 도민 불편 등을 감안해 전남 감염병 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방역단계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시군·시설별 위험도 등을 자체 평가해 방역단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전자출입명부 비치·집합행사 시 방역수칙 이행계획서 사전 작성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동일 생활권인 광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노래 부르기, 식사 모임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구, 평생학습 특성화 강좌 눈길

광주 동구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에 참여할 학습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자동차 정비과정을 개설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집수리과정을 편성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 개설된 '집수리 아카데미'는 주민이 직접 전기·수전수리, 조명 교체, 공기사용법 등 어렵게만 느껴졌던 집수리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리모델링 정보로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 포스트코로나 언택트 릴레이 명사 특강 진행

광주 서구가 포스트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3일부터 29일까지 '언택트 릴레이 명사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자 행정·사회문화·경제 분야의 석학을 초청해 추진된다. 특강은 ▲ 행정분야(신광용 소장,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부부처 정책 및 공모사업) ▲ 사회문화분야(이경상 교수, Beyond Corona +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의 준비) ▲ 경제분야(최재근 교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플랫폼 경제) 등 3개 분야를 주제로 구성된다.

남구, 맞춤형 돌봄 서비스 수혜자 늘린다

광주 남구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로당 등의 이용이 제한돼 사회적 단절과 고독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 관리를 비롯해 가사 지원, 심리방역 등을 포함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구는 24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올해 초부터 어르신에 대상으로 주기적인 식사 관리와 청소 등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던 맞춤형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수혜자 확대를 위한 추가 신청자를 받는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중점 돌봄과 일반 돌봄 2가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중점 돌봄은 월 16~40시간 미만 범위 내에서 식사 관리와 청소, 말벗지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일반 돌봄은 월 16시간 미만으로 한 시적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구,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 지역업지원센터 연다

광주 북구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했다. 북구는 27일 북구청 1층에 '북구 지역업지원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북구 지역업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광산구 안심식당, 농림부서 우수사례로 전파

감염병에 취약한 식문화 개선을 위해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선정한 '안심식당'이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사례로 선정돼 다른 지자체로 전파되고 있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무총리 지시로 전국에 전파 중인 안심식당은 3월부터 광산구가 시작한 '광산 안심식당 서약운동'에서 비롯됐다. 7월부터는 광산구를 제외한 광주광역시 타 자치구도 안심식당제도를 실시 중이다. 광산 안심식당 서약운동은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상시 비치 △영업장 매일 소독 5가지를 스스로 실천할 것을 약속한 내용으로, 현재 145개소가 지정돼 있다.

임형택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서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이여! 늦게서서 안전한 출근길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1.1배 240,833원 (보험료) / 1.7배 410,917원 (혜택)
1.7배 125,531원 (보험료) / 2.7배 339,134원 (혜택)
2.1배 79,147원 (보험료) / 5.3배 420,464원 (혜택)
2.7배 48,103원 (보험료) / 26,697원 (보험료)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